

(3) 에서의 아내들과 갈등(26:34-35)

1) 그랄 여행과 사기(26:1-11)

34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 26:34/ '사십 세에': 이삭은 같은 나이에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아내를 취함(25:20).
'헷 족속...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일부다처는 라벡으로부터 시작된 전통.
* 유딧과 바스맛의 이름에 관한 논쟁: 36:2-3의 명단과 다름. 명확한 해답은 없음.
- 26:35/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부모는 족외혼을 당혹스럽게 여김.
* 리브가는 이 문제에 대해 차후에 격하게 반응(27:42) - 밋단아람의 자기 친족의 거절에 대한 고통?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와 에서와 야곱 사이의 불화를 암시.

3. 축복을 훔치고 밋단아람으로 도망하다(27:1-28:9)

중요내용

- * 가족의 결속을 위협하는 도덕적 과오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의 헌신.
- * 리브가와 야곱은 극도의 불쾌한 계약의 공모자가 됨: 가족을 20년 동안 갈라지게 했고 야곱에게는 영원한 수치.
- *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이유에 신탁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보다는 야곱의 기질과 직업에 더 비중이 있을 가능성.
- * 이삭의 '눈이 멀'은 낭감을 먹는 일에 집중한 이삭의 무지함에 기여.
- * '장자권(브로카)'와 '축복(브라카)'이라는 언어유희를 통한 형제 간의 두 가지 충돌(장자권과 축복)이 고조.
- 축복은 철회할 수 없는 맹세를 수반: 회개한 야곱의 관대함(33:11)으로 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음.

1) 축복을 훔치다(27:1-46)

1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3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 27:1/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계승을 준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 죽음에 가까워지는 징표. 육체적 감정적 유약함을 표현.
- 이삭은 실제로 20년 이상을 더 생존.
* 맛있는 요리 때문에 에서를 편애한 영적 상태에 대한 은유.
'맏아들 에서를 불러': * 이삭이 장자 상속의 관습을 실행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
* 창세기에서 장자 상속을 자주 무시한 것에 비추어 형제의 반전에 대한 깨달음을 고조.
- 27:3/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 사냥꾼으로 간단한 임무를 지시하여 축복 절차를 준비.
* '활'은 버림 받은 아들의 무기였음(21:20).
* '기구'는 전쟁이나 사냥에서 살해 수단을 가리킴-야곱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
- 27:4/ '내가 즐기는': '내가 사랑하는'- 먹을 것에 대한 강한 애착.
'내가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는 아버지의 강한 열망을 표현.

5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 27:5-7/ '리브가가 들었더니': * 장막 문에서 세 방문자의 말을 듣고 있던 사라를 떠올리게 함.
* 리브가가 야곱을 배후 조종하게 되었고 이삭은 깨닫지 못함.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에서를 '이삭의 아들'로 지칭한 1, 5절과 대응하여 가족 내의 갈등을 강조.
'여호와 앞에서': 종교적인 중요성의 무게를 더함.
'...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신이 이삭의 의도를 들었으므로 즉각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8 그런즉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यो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 27:8-10/ '내 아들이 내 말을 따라': '내 아들이'와 함께 세 번 나오는 순종의 명령(8, 13, 43).
'가서... 가져오면': 13절에서 반복. 이 명령은 28:2에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결과를 초래.
'그가 즐기시는 별미': '별미'는 27장 외에 단 두 번 등장하는데, 이 유혹에 대한 경고(잠 23:3, 6).
- 27:11-13/ '야곱이... 리브가에게 이르되': 이 음모에 수반하는 위험을 인지.
* 최악의 경우 저주를 자초 (눈 먼 자를 잘못 인도하게 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यो...':
* 자신의 부드러운 피부와 털이 많은 형의 피부를 대비. 출생 때의 신탁을 떠올리게 함.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 리브가는 야곱에게 일어날 저주를 자신이 감당할 것을 서원.
* 유대 전통은 야곱의 죄책을 리브가에게 돌림.

14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17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 27:14-17/ '그가 가서...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입히고.. 주니'
* 리브가가 계획을 수행하는 단계를 묘사. 음모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
* 주연은 리브가. 꼭두각시인 야곱을 배후에서 조종.
*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쌍둥이의 기이한 출생을 경험한 것이 리브가의 강박을 촉발시켰을 것.
* 야곱의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우연이나 섭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음. '최고의 옷', 음식에 더할 '떡'을 의지.
* 지략가답게, 염소의 살코기 뿐만 아니라 털가죽도 이용.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19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 27:18-19/ '내 아버지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내 아버지여'는 아버지를 신뢰했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신뢰를 저버림.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의 노골적 거짓말.
- 장자권을 사취한 이전 행각을 떠올리며 기만의 심각성이 드러남.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삭의 지시를 수행한 충성을 과장함으로써 그릇된 행동의 오명을 더함.
'내가 사냥한 고기': 교활한 위장을 계속함.

20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 27:20-23/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의 의심.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 참담하게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 돌림.

* 미묘하게 임박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을 주장, 자신의 사냥 성공을 축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결부.

- 그러나, 결국 출생 신탁은 리브가와 야곱의 사악한 행동으로 성취되는 역설.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이삭은 의심을 축각과 음성으로 확인하려 함.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니’: 긴장의 고조.

‘음성의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의 가짜 피부를 느낀 후에 이삭의 혼란.

이후에 야곱은 단어 하나로 대답을 제한(24절).

‘그의 손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된 이유.

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 27:24-27a/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마지막으로 진실한 대답을 청함.

‘그러하니이다’: 세 번의 거짓말(19, 20, 24). 야곱은 단순히 능숙한 협상가가 아닌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가져가매, 먹고, 가져가매, 마시고’: 야곱의 범죄를 연속되는 행동으로 급하게 진술.

‘입맞추라, 입맞추니’:

* 헤어짐의 입맞춤에 담긴 격한 감정은 가련한 아버지를 속인 아들의 비루한 성품을 강조.

* 사적 이득을 위해 입맞춤과 함께 배신한 일은 유다가 은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한 입맞춤으로 대체.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후각으로 아들이 사냥꾼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축복하게 됨.

27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 27:27b-29/ * 축복의 시의 두 주제: '땅의 결실', '큰 민족' -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영.

‘내 아들의 향취는... 밭의 향취로다’:

* 이삭은 밭에 대한 애착을 보이면서 에서가 들의 향취에 대해 갖는 관계를 말함.

* 이삭은 사냥꾼의 옷 냄새 때문에 신속히 에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 - 오해로 인한 축복임을 암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하늘과 땅, 즉 자연전체가 풍요적임을 드러냄.

* 모세는 이 수사 공식으로 요셉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

* 비옥한 땅을 소유한 것이 29절의 축복에 대한 예비.

- 29절의 축복은 형제 국가라해도 경쟁 국가를 예측시키는 번성한 국가를 전망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리니’:

*강력한 국가의 발흥을 예고. 풍요와 지배가 함께 등장. 창조시에 정한 축복의 패턴.(1:28)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의 굴복에 대한 예언이 부지 중에 공식화됨을 암시.

‘네게 굴복하며’: 복종과 공경.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

‘네 어머니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친족 관계 관념을 강화.

* 에서 앞에서 절한 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

- 부모의 축복이 역사의 흐름을 구술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 주님은 이 이상한 왜곡으로 궁극적인 야곱의 지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 주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발람 신탁과 순서만 다르고 동일(민 24:9).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 27:30-33/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나가자’: 에서의 두 가지 실패. 축복의식이 이미 끝났고 야곱은 사라짐.

‘아버지여... 잡수시고... 축복하소서’: 야곱의 청(19절)을 떠올리게 하지만 더 공손한 표현.

‘너는 누구냐’: 야곱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이삭의 수사학적 질문.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가족 내에서 에서의 지위를 강조.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은 이삭의 본능적인 반응.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의 돌이킬 수 없는 성질로 인한 이삭의 즉각적인 우려.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 27:34-35/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에서도 이삭과 같은 격한 반응을 보임. ‘울부짖었다’.

‘속여서’: 야곱이 언젠가 직접 겪게 될 배반을 묘사하는 단어.

‘빼앗았도다’: ‘취했다’, 리브가가 준비한 것을 묘사(9, 13, 14, 15)

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니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 너는 칼을 밧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 27:36-37/ ‘빼앗았나이다’,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의 속임수와, 이삭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분노.

‘나를 속임이’: ‘아카브’, 야곱의 이름에 대한 언어유희. 에서의 속편한 망각.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결과적으로 더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이 여러 민족의 지배자와 풍요로운 추수의 소유자가 될 것.

- 27:38-40/ ‘내게 축복하소서... 소리 높여 우니’: 에서는 유약한 열간이인 동시에 가련한 희생자.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원래 장자에게 의도되었던 축복의 절반 분량의 축복.

* 에서의 땅과 집은 건조하고 결실이 없음. 야곱과 대조 - 에돔의 광야, 사막 방향의 아라바 동편.

‘생활하겠고’: ‘남아서 생존하다’. ‘칼’: 전쟁 도구(암 1:11).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야곱이 에서를 토벌하여(겔 25:13)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을 섬김.

‘멍에를 떨쳐버리리라’: * 에서의 진정한 성품을 멍에를 깨뜨린 야생의 다루기 힘든 짐승으로 묘사.

* 이삭의 갈등 예고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삶이 됨.